

##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

Laurent Pereira

최성희

최-페레이라 건축 공동대표

### 개요

위치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 85번길 142
건축면적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 1,495m <sup>2</sup> 에코에듀센터 - 480m <sup>2</sup>
구조설계 자문	에스트건설
설계	Laurent Pereira, 최성희(최-페레이라 건축)
협력설계	이즈모어앤씨건축사사무소, 유담건축사사무소
건축주	광명시청

\* 이 글은 영문 원고의 번역본으로, 저자의 집필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번역문과 원문을 병기하였다.



에코에듀센터 전경

반투명한 플라스틱 외피  
때문에 에코에듀센터 안에서  
벽을 보면 바깥 풍경이  
색색으로 번져 보인다.  
밖에서 바라볼 때 낮에는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띤 라이트박스처럼  
그 모습이 달라 보인다.



공장과 비슷한 형태로 설계한  
에코에듀센터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을 리모델링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Thierry Sauvage



©Thierry Sauv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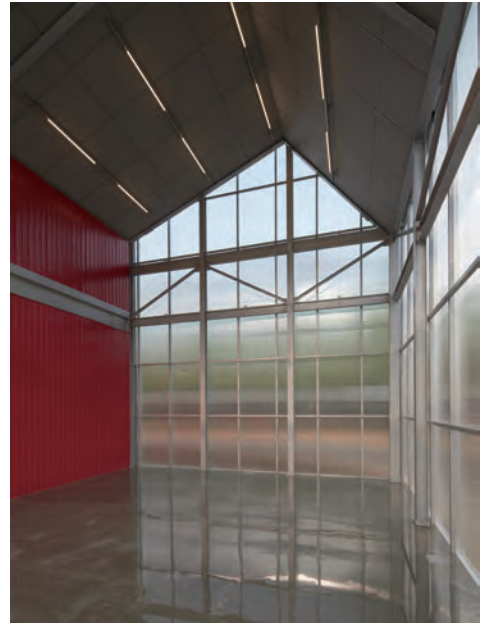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시 홀



개방성,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강조된 공간



©Thierry Sauvage



©Thierry Sauvage



©Thierry Sauv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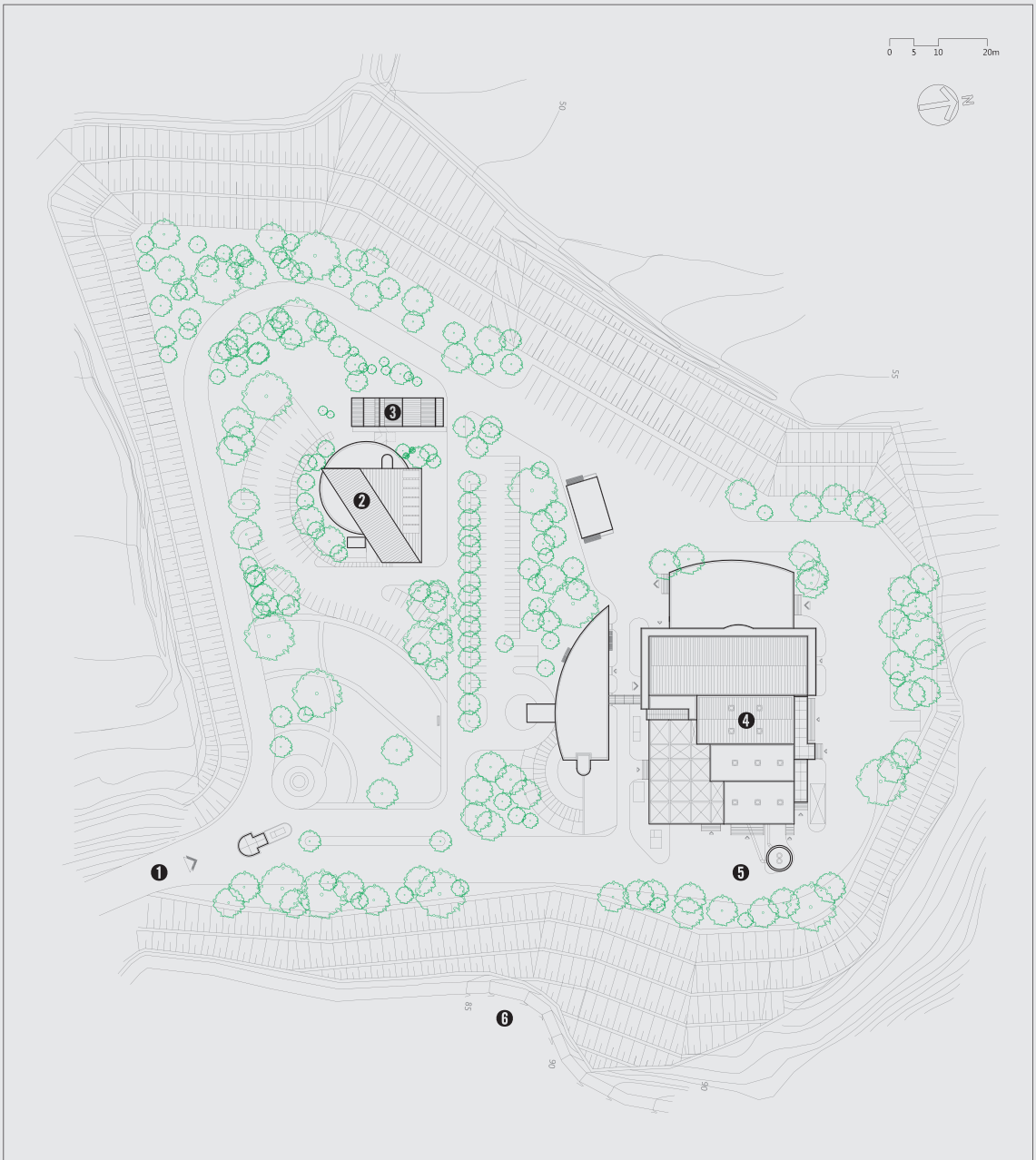
상 에코에듀센터 계단  
중 바깥 풍경이 비쳐 보이는 에코에듀센터 내부  
하 에코에듀센터 교육실

우리는 ‘개인에게 풍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으로 이 시대에 답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획일화·표준화에 대한 저항이자 예술과 오랜 건축 실험의 과정을 연결하는 일이었다. 대량생산과 효율성의 가치만이 강조되고 상업주의가 우리 문화에 만연한 가운데 개인의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건축으로 가능하게 하고 싶었다.



©Thierry Sauvage

마치 거울처럼 보이는  
에코에듀센터의 외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배치도

- 1 대지 진입로
- 2 업사이클아트센터
- 3 에코에듀센터
- 4 발전소
- 5 굴뚝
- 6 광산 진입로



©Thierry Sauvage



상 자원회수시설 홍보동을 리모델링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하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의 전시 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여 지역난방용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대지에 지어졌다. 부지 인근에는 폐광을 관광지화한 광명동굴도 자리하고 있는데, 지역의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광명동굴 외에 또 다른 공공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기획되는 계기가 되었다.

### 소통과 협력으로 짓다

공공 프로젝트였지만 여타 비슷한 프로젝트가 거치는 관료적 절차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건축가와 전시관 운영자인 큐레이터, 협력적이었던 지자체장이 긴밀하게 소통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쓰이지 않는 자원회수시설의 홍보동을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고, 건축허가 부지 안에 교육시설 ‘에코에듀센터’를 신축하였다. 외부 다리를 새로 만들었고 승강기도 설치하여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동 통로들을 통해 넓은 전시 홀과 레스토랑, 입주 작가 레지던시, 강당과 교육실, 목공 작업실, 창고, 그리고 누구나 필요할 때 활동을 위해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여윌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적지 않은 작업량이었지만 기획에 참여한 주체들 간에 신속하고 집중력 있는 협의 과정 덕분에 단기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완성될 수 있었다. 실제로 기획부터 개관까지 약 1년의 기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The Gwangmyeong Upcycle art Center is situated in the wide site of a trash burning power plant. It is born out of the new interest for a sustainable society and the local need for new public spaces, alongside with the touristic valorisation of a disused gold and silver mine in the adjacent moun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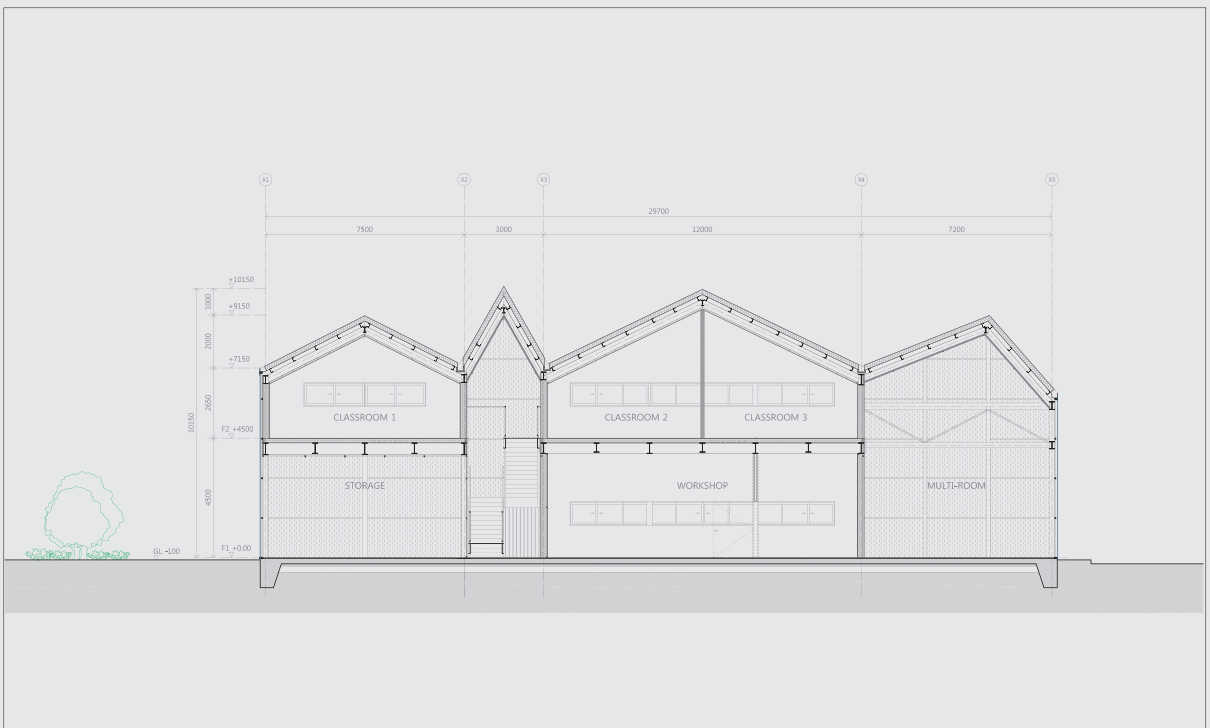
Although a public program on a public land, the center was conceived through bypassing the bureaucratic procedure that usually goes into such project. The architects, curator and sometimes a supportive mayor, were able to design the program, that included the renovation of a disused visitor center into an exhibition center, the carving out of a permit area for a new education building and plan for a new external bridge and elevator that made both premises accessible for the disabled. It combines a large exhibition hall, a restaurant, residency ateliers, lecture halls and rooms, a carpentry workshop, storage and that extra room that would be freely used by whoever has activities there. A fast, sometimes combative ping-pong between the parties allowed for a space and its program to be created in a short time (a year between programing and opening) and cheaply.

©Thierry Sauvage



에코에듀센터 전경

©최태민/이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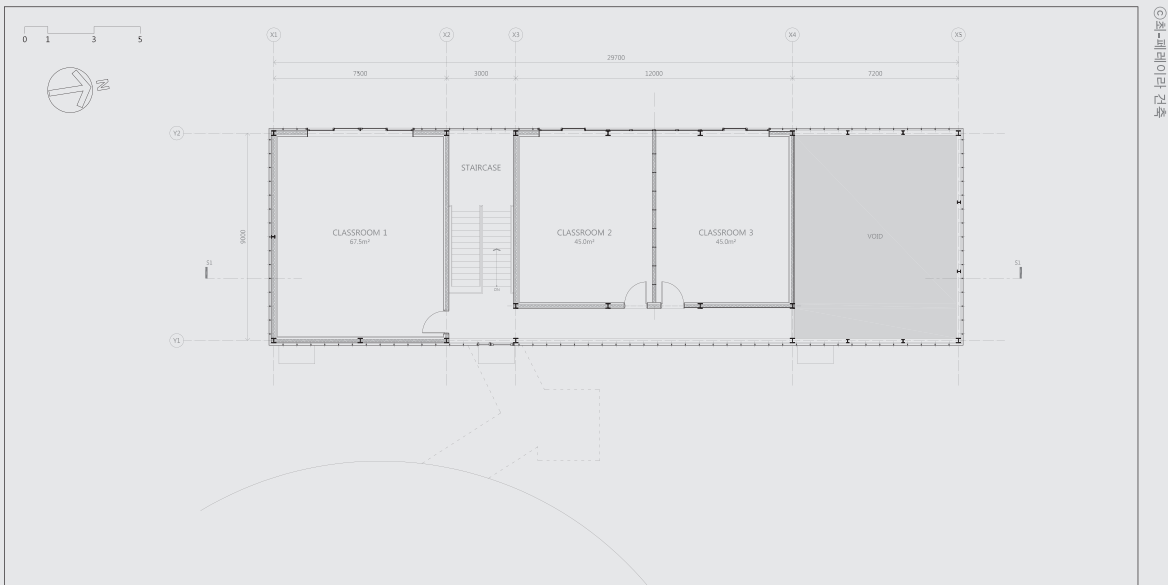
에코에듀센터 단면도

### ‘사회적 조형물(social sculpture)’로서 건축

10년 전 우리는 건축이란 곧 ‘지각되는 것’ 또는 ‘지각되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시작하였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현상(現象)에 의미가 더해졌을 때 건축이 된다는 생각은 건축을 시작하는 바탕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건축에서의 기술적 구축성과 기호(taste), 정치성이라는 특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개인의 경험’이다. 개인이 하나의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 관계가 곧 건축적 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건축은 곧 ‘조형(造形)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은 그 형태로써 건축가가 주장하는 바를 드러낸다. 건축가의 디자인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은 형태를 통한 문화적 성명(statement)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2005년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에게 풍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으로 이 시대에 답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획일화·표준화에 대한 저항이자 예술과 오랜 실험의 과정으로서의 건축역사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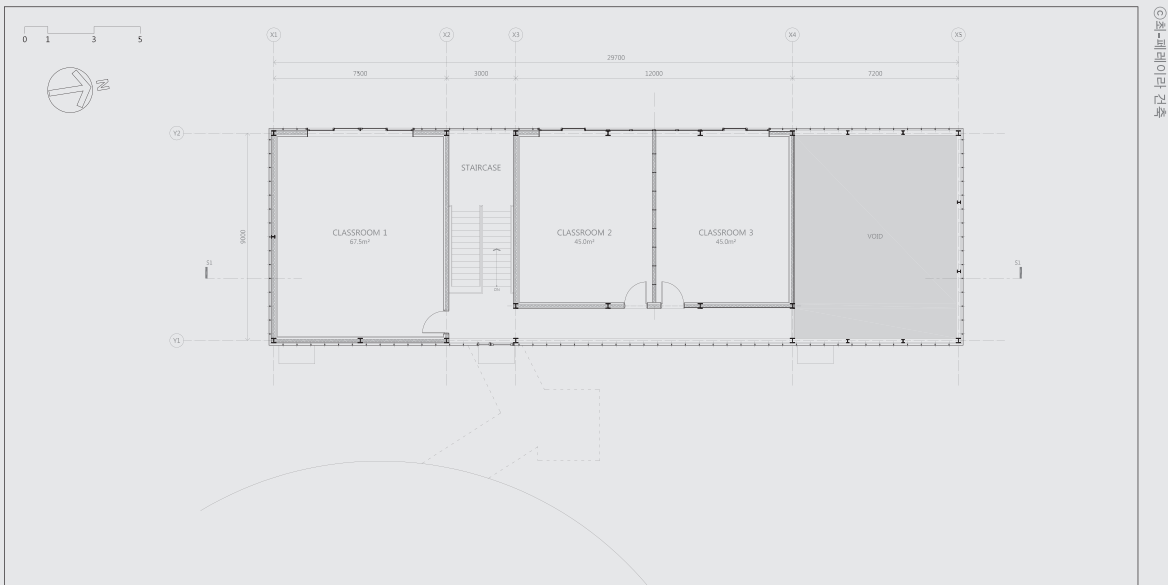
에코에듀센터 2층 평면도

### ‘사회적 조형물(social sculpture)’로서 건축

10년 전 우리는 건축이란 곧 ‘지각되는 것’ 또는 ‘지각되는 것들의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축 설계를 시작하였다.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현상(現象)에 의미가 더해졌을 때 건축이 된다는 생각은 건축을 시작하는 바탕으로, 매우 개방적이고 추상적이지만 건축에서의 기술적 구축성과 기호(taste), 정치성이라는 특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개인의 경험’이다. 개인이 하나의 물리적 공간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 관계가 곧 건축적 현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건축은 곧 ‘조형(造形)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건축은 그 형태로써 건축가가 주장하는 바를 드러낸다. 건축가의 디자인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은 형태를 통한 문화적 성명(statement)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2005년부터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에게 풍부하며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제공하는 건축’으로 이 시대에 답하고자 했다. 그것은 곧 획일화·표준화에 대한 저항이자 예술과 오랜 실험의 과정으로서의 건축역사를 연결하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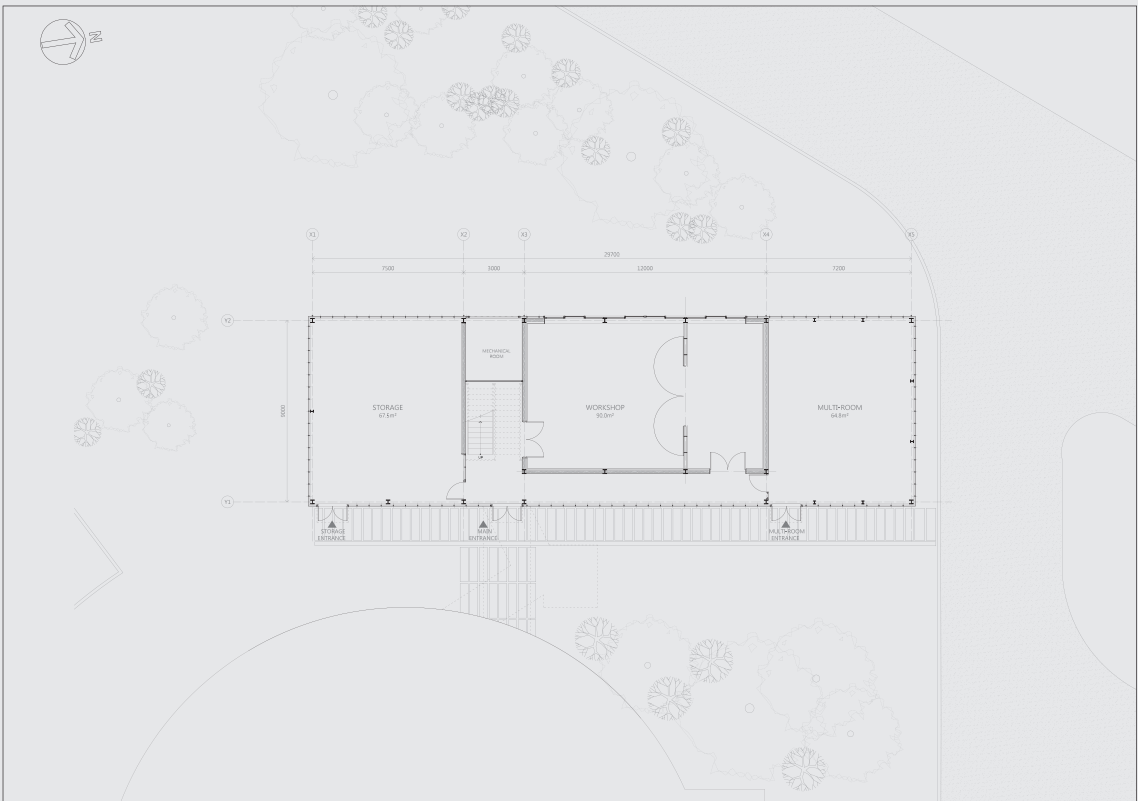
에코에듀센터 2층 평면도

## architecture as a social sculpture

10 years ago we started our practice with the idea that architecture is a percept, a bloc of perception. A visual, spatial phenomenon, charged with meaning. it was a very open, abstract ground to start from, but it allowed to not really minding about tectonics, taste or politics. it was also individualistic, in the sense that the core of the architectural phenomenon was the perceptive relation between an individual and the space/ percept. there was no hard frontier between architecture and sculpture.

Architecture has to be formally expressive, as you can't really escape it, your design is a cultural statement through a shape, voluntary or not. Starting a series of projects around 2005, being formally expressive wasn't a whim, it was central to the idea that for individuals, a rich, non-conventional experience is essential to our culture. It was a fight against normalization, a connection to art and architecture historical process of experiments. The formal expression was the answer to our times, a way to allow a rich individual experience against both the productivist moralism and crass commercialism pervasive in our culture, specifically i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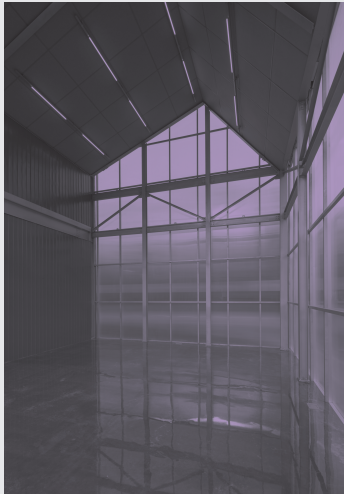
© 리베라 건축  
북



에코에듀센터 1층 평면도



©Thierry Sauvage



상 공장과 비슷한 형태로 설계한  
에코에듀센터  
하 바깥 풍경이 비쳐 보이는  
에코에듀센터 내부

## 자유로운, 고정되지 않은 공간

건축가다운 창의적 해결 방안으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답은 ‘공공건축’이었다. 공공건축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성찰과 주장을 반영할 수 있었다. 건축은 때때로 허영과 허욕, 과장된 선전(propaganda)을 수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자유로움과 개방, 다양한 상호작용, 교육과 창조 같은 가치를 건축에 담아내는 것이었다. 건축가로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가까이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건축은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할 때 좋은 제재(題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공간을 서로 다른 용도의 공간이자 상호작용의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아트센터에 담기는 예술과 방문자 모두 상품화된 실체로 한정되거나 기능적으로 고정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입구를 만들어 각각의 공간이 ‘계층(hierarchy)화’되지 않도록 하였고, 공간들이 서로 열려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코에듀센터의 건축 요소는 거의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철골 구조와 플라스틱 외피까지 거친 편이다. 공장과 같은 형태로 외형을 설계하였고, 외피 소재로는 플라스틱을 일관되게 사용해 유동적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각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였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외피 때문에 에코에듀센터 안에서 벽을 보면 바깥 풍경이 색색으로 번져 보인다. 밖에서 바라볼 때 낮에는 마치 투명한 거울처럼 보이지만, 밤에는 분홍색과 노란색을 띤 라이트박스처럼 그 모습이 달라 보인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내부에서는 모든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내려다보거나 또는 올려다볼 수 있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트센터의 공간을 즐기도록 하였다. 업사이클 아트 전시, 입주 작가 레지던시와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가득 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오늘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유로움의 종착점이란 있을 수 없지만, 사회 공동의 의지를 통해 자유의 순간들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But the way the world is changing pushed us to adapt creatively. The individual experience wasn't enough. With public buildings we had the opportunity to include a social reflection. Architecture can serve vanity, greed and propaganda but our aim was to allow for freedom, a multiplicity of interactions, education and creation. As an architect there is so much you can do but a few aspect can help for that push, for a public space that is not alienated, but open for potential and free interaction.

We designed the center space as a place for different uses and interactions, as neither the art nor the visitors should be limited as commodified entities, functionally determined. Through multiple entrances we avoided any hierarchy in space, but allow a variety of ways along open, interacting spaces. the language of architecture is rough, almost undetailed steel skeleton wrapped with a polycarbonate skin. We gave a factory shape and the unified skin gives the building a fluctuating visual identity; the view from inside as a colorful blur of the outside landscape, the change from night and day from quasi mirror to pink/yellow lightbox. Every space looks up or down to another one, people roam around with curiosity. Now the center is working full steam, with upcycled art exhibitions, residencies and educative programs. Freedom is never final, but sometimes moments of it happens through collective will.

©Thierry Sauvage



©Laurent Pereira



상 개방성, 자유로운 상호작용이  
강조된 공간  
하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를 찾은  
방문객들